

21세기의 수의사(I)

최 찬 영*

지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그야말로 하루가 다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대한수의사회도 지난번 총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며 카톨릭 농민회를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하신 이길재 수의사를 우리들의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우선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나라 6,000여 수의사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통하여 우리 조직의 커다란 발전과 수의사의 권익향상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제 바야흐로 권위주의의 시대는 가고 文武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는 민주사회, 신바람나는 사회,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존중되는正義가 살아나고 모순과 비리가 정화되고 惡法이 개정되는 진실된 문명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회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 협동하고 단결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하고 정진하여 새로운 문명시대의 수의사, 21세기의 시대 정신에 맞는 수의사像을 창조하여야 하겠다.

20여년의 수의사 생활을 통하여 본인이 느끼고 개혁하여야겠다는 몇가지 생각을 가다듬어 우리 회원들께 제안하고자 하며 동시에 새로 구성되는 대한수의사회 임원들께 몇가지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려한다. 우리 수의사란 직업은 전문적이다. 어떤 직업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업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회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자존심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자.

수의사됨을 후회하거나 우리의 직업을 격이 낮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현대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직업을 고귀하고 존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동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직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읽고 또 읽어 가슴에 새기고 실행한다면 권익향상은 훨씬 빨라질 것이다. 둘째 인간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자. 전문직업인들은 자칫 인격도야에 등한시하기 쉽고 한 부분만 파고들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집과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단체와 조직이 약해지기 쉽고, 협동과 협업이 잘 안되기 쉽다. 수의사의 직업만이 성스럽고 제일 좋은 것은 아니다. 인간생활의 아주 작은 한 분야란 점을 명심하고 다른 분야와 협력하고 같은 수의사들끼리도 서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우리 모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대동물 병원은 지역적 협업을 통한 종합병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쁨은 두배가 되도록 하고 고통은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가 아는 몇개 지역의 대동물 협업화 종합 병원은 성공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JE, 로타리, 라이온스 등의 사회봉사단체와 기타의 公的, 私的인 단체에서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 참

* 신진동물병원

여와 봉사료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셋째는 수의사의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자. 지난 20~30년 사이에 국민소득 수준과 국가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우리 수의사들의 소득 수준과 品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보다 못한 처지의 협회와 직업인들도 막대한 광고비와 마케팅전략으로 국제 세미나를 최고급 호텔에서 연중 수회씩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못하고 있는가? 현대

는 자기 PR의 시대라는 진부한 이야기도 우리 수의사들은 모르고 있는가?

안되는 이유와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 회원 모두 잘 생각해보고 멋있고 존경받는 수의사상 확립에 오늘부터 모두 동참하자. 또한 새로운 도전과 창조로 우리 모두 문민시대의 주역이 되자.

(다음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조직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 한다.)

시간안내

가축 해부학 용어

한국가축해부학연구회 지음

농림수산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82면 정가 30000원 정문사 발행

신청처 정문사 전화 : 713-0423

FAX : 704-6265